

# 외국인 학습자 개별 학습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미망 사전 개발 방안

이 유 경

## Abstract

**Lee Yookyong.** 2012. 6. 30. **Studies on Korean Semantic Network Dictionary Development for Foreign Student's Individual Study.** *Bilingual Research* 49, 243-26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Korean semantic network dictionary for foreign stud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focus on individual study where learners are able to find the meaning of the vocabulary to understand and practice without the help of the teachers. In many cases, when introduced to new vocabulary learners rely on bilingual dictionaries. Current bilingual dictionaries present diverse meanings and examples; however the fact is the meta-languages and examples given requires higher level than what the learner's can comprehend. In order to supplement the bilingual dictionaries shortcoming, the study suggests development of Korean dictionary incorporating semantic network, corpus, and advantages of the bilingual dictionary. Based on WordNet and Kornet, the study utilizes the vocabulary meaning from bilingual dictionary and foreign learner corpus data to develop semantic network dictionary to help learner's individual study. This study aims to explore educational gradation of Korean vocabulary meaning particularly for L2 learners. The study focuses on the polysemous verbs with the features related to the semantic expansion based on the L2 learners' intellectual abilities, thereby presents a need to set the standards for educational gradation of Korean vocabulary meaning. The result has a great significance for the Korean vocabulary education on the basis of L2 learners' abilities. The meanings of each polysemy are presented based on the frequency of meaning dictionary and the corpus data is also employed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on the semantic expansion. (Korea University)

**【Key words】** 어휘의미망(semantic network), 워드넷(WordNet), 코어넷(CorNet), 이중언어사전(bilingual dictionary), 코퍼스(corpus), 사전(dictionary), 개별 학습(individual study)

## 1. 서론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의미망 사전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어휘의 의미를 찾아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휘의미망 사전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어휘 교육이 단지 어휘와 의미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와 그 의미들의 관계를 이해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휘 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그 양이 방대하여 교육이 수업 시간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개별 학습을 통해 수업 시간 이외에 어휘를 학습해야 하는데 목표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같은 이유로 여러 언어 기술에 있어서 고급 학습자라고 판단되는 이들조차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개별 학습 시는 물론 교실 수업에서도 새로운 어휘 혹은 의미라고 생각할 때 사전을 찾게 된다. 이때 그 어휘가 제시된 맥락을 통해 대강의 의미를 추측하고 사전에 제시된 여러 의미 가운데 그 맥락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고는 한다. 그러나 많은 한국어 혹은 국어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의미 해석은 그 메타언어 자체가 어려우며 제시되어 있는 예문들도 해당 언어의 문학 작품이나, 신문 자료 등 문어체 문장으로 모여 사용자들을 위한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가진다. 또한 최근 많은 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코퍼스를 활용한 의미 학

습은 활용상 장점을 가지나 외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문의 수준이 터무니없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의미망과 코퍼스, 사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어휘의미망, 코퍼스, 사전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의미를 제시해 주고 연습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먼저 한국어 어휘의미망에 대한 연구로는 이현희(2008), 이숙의(2010), 신현숙(2011) 등이 있는데, 이현희(2008)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동사 어휘망 조직 모형 구축 방안을 제안한 연구로 ‘이동 동사’ 중 일부 동사를 대상으로 어휘 내향 정보를 조직하고 이를 학습자 모국어 정보와 연결시켜 학습자가 한국어 동사의 정밀한 양상을 살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각 동사가 다른 어휘들과 연결되는 의미 관계를 통해 맥락에 맞는 의미를 이해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숙의(2010)은 어휘 교육 자료로서 어휘의미망의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로 어휘의 의미관계와 결합관계 두 가지 측면을 코어넷의 어휘 정보를 이용하여 검토하고 이를 한국어 어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논의한 연구로 기존의 어휘의미망을 활용하되 의미정보와 통사정보에 있어 보완한다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에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주제와 연관이 깊다.

또한 신현숙(2011)은 어휘의미망을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또는 교수-학습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 수준에 따른 다양한 의미망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고급 학습자는 물론 초급 학습자들 역시 한 항목 또는 두 항목을 고려한 의미망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의미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한 의미망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과 한국어 교육자가

적극 참여하여 학습 목표, 학습자 수준, 학습 단계 등을 고려한 표준 의미망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 표준 의미망 구축과 함께 한국어 교육자가 교육 현장에서 적극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을 들었다. 신현숙(2011)은 이 같은 제안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체계적으로 마련된 어휘의미망 구축이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시사한다.

강현화·최진희(2009)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중언어사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중언어사전들이 너무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간의 사전들이 학습자의 기본적인 필요성을 지향하기보다 범용 사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중언어사전이 언어 교육에 효용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단순히 기본 의미 간의 번역에 머문 사전이 아닌 언어 간 대조 분석에 근거한 ‘대조의 전문성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앞선 연구들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을 위해 한국어 어휘의미망의 활용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어 어휘의미망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한을 가진다. 또한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중언어사전은 학습자들의 목적 부합하게 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어휘의미망을 사전의 기능과 연결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휘 의미를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어휘의미망을 이용한 사전 개발 원리

### 2.1 어휘의미망

사전은 대규모의 어휘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어휘 지식 정

보를 자동 처리하거나 정의문에 제시된 어휘의 중의성, 다의어의 해석이나 텍스트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료 해석의 정확성이나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그러나 어휘 의미 교육에 측면에서 보면 이 같은 문제점은 효과적인 사전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어휘 의미망을 활용이다.

### 2.1.1 워드넷과 KorLex

일반적으로 개념 혹은 어휘의미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어 처리에 필요한 대량의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인간의 두뇌에 저장된 어휘의 지식을 그물망처럼 구조화시킨 어휘자료이다. 즉, 어휘 간 의미관계 또는 연상관계를 나타내어 주는 개념의 지도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인지심리학자인 G. Miller가 인간의 심상에 하나의 의미가 다른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상 작용에 대한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로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워드넷(WordNet)이다. 이은령·윤애선(2007)에 따르면 워드넷은 대규모의 어휘 의미를 세분화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어휘의 중의성 해결이 어려웠던 자연어 처리나 검색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일반 어휘 사전을 능가하는 언어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전이 어휘의 의미 정보를 저장해 놓은 지식 원천이라면 어휘의미망은 의미정보를 유기적으로 관계 지음으로써 기계번역, 문서분류, 정보검색 등의 성능을 호전시키는 데 필요한 의미 처리 기술의 핵심이 되는 지식 베이스이다. 이 외에도 일본의 어휘 대계, 중국의 하우넷(HowNet), 유로워드넷(EuroWordNet) 등의 어휘 의미망이 구축되어 있다. 이를 참조하여 만든 것 중 하나가 KorLex(Korean Lexico-semantic Network)인데 KorLex는 WordNet의 구축 범위를 포괄하는 동시에 한국어에 특히 발달한 내용어

범주인 분류사를 추가하고, 구축 방법론에 있어서도 대역 단계를 넘어 한국어 의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어휘의미망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KorLex는 한국어에 적용되는 의미세분화의 기준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두고 있다.

### 2.1.2 코어넷

다음으로 코어넷(CoreNet)은 일본전신전화사에서 개발한 일본어 어휘 단계를 한국어에 적용한 어휘의미망으로 일본어 어휘의미망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어휘의미망의 틀을 자동으로 형성하고 이를 수동으로 정리하여 구축한 것이다. 코어넷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다국어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자료로서 활용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석주(2007)에 따르면 코어넷은 일본어 어휘의미망을 기반으로 하여 어휘의미망의 틀을 자동으로 형성하였는데,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드러나는 개념 체계가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관성 문제, 분류의 체계성의 문제, 개념 범주의 불충분의 문제 등이 있다.

### 2.1.3.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의 활용 문제

어휘의미망은 이처럼 영어나 특정 언어를 매개어로 언어 간 개념 대응을 위한 의미 색인(index)을 구성하면 다국어 어휘의미망으로 확장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orLex와 코어넷은 어휘의 의미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나 다른 언어의 어휘의미망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어 정보와 중국어 정보를 연결시켜 놓은 카이스트의 코어넷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한국어와 외국인 학습자의 모어 정보를 연결

시킬 수 있다면 한국어와 모어 2가지의 심리어휘부(mental lexicon)를 가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훨씬 적합한 어휘 학습 자료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구축되어 있는 어휘의미망은 대부분 모어 화자를 위해 개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데에 문제를 가진다.

첫째, KorLex의 경우 WordNet과 연결되어 있어 어휘를 검색하면 해당 어휘의 영어 어휘를 바로 볼 수 있으며 의미 관계를 따라 가며 어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 풀이는 의미 관계와 영어 대역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해당 어휘의 의미가 사용되는 예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가 이를 이용하여 어휘를 학습한다고 보면 학습자 모어 어휘의미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미가 실제로 문장이나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진다.

둘째, 코어넷으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풀이 및 예문과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어·중국어·일본어의 다국어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용되는 예문이 외국인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으며, 메타언어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정리하면 기존의 어휘의미망은 그 규모면이나 상위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어 어휘 의미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휘의미망의 각 절점이 되는 상위어의 어휘 선정이나 어휘들 간의 관계, 어휘 내부 정보 배열 방법 등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을 고려한 망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의미 풀이와 예문의 제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기존의 이중언어사전<sup>1)</sup>과 코퍼스를 활용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이중언어사전’이란 외국인 학습자용 사전을 지칭하나 강현화·최진희(2009)의 내용을 따르며 여기서는 ‘이중언어사전’이라는 용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2. 이중언어사전

어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전을 찾는 것이다. 전자 사전의 개발과 함께 이중언어사전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손쉽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웹사이트들도 인터넷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예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사전을 사용하여 자신이 찾는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이런 사전들은 학습자들이 찾는 어휘의 의미를 빠르게 제공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학습 자체를 도울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검색했을 때 목록으로 제공되는 의미들 가운데 학습자가 찾는 문맥에 맞는 의미는 무엇인지 찾기 위해 많은 메타언어를 이해해야 하고 예문을 또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는 자신이 읽거나 듣기 지문에서 접한 어휘의 새로운 의미를 알기 위해 또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강현화·최진희(2009)<sup>2)</sup>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많은 학

---

사용하고자 한다.

- 2) 강현화·최진희(2009)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 사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학습자의 학습 목적 및 숙달도 변인에 따라 표제어 선정 및 관련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의미 정보의 제공은 목표 언어만으로 제공되는 것보다는 학습자의 모어로 제시되는 것이 활용도 면에서 효과적이다.
  - 다. 발음 정보의 제공은 CD, MP3, 웹 등을 이용한 실제 발음 듣기의 제공이 바람직하다.
  - 라. 삽화 제공은 목표 언어에만 존재하는 단어이거나 간단한 그림 제시가 더 효과적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 마. 어원 정보의 제공 여부는 목표어의 어휘가 외래어이거나 학습자가 알고



습자들은 새로운 어휘를 접했을 때 전자 사전을 사용해 1:1 번역어를 보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상 그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대역을 보고 의미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은 그 사용에 있어서도 오류를 양산할 것임은 뻔하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사전은 단순히 언어 사전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휘 학습의 특성상 학습자 혼자서 어휘 의미를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는 학습서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외국인 학습자용 사전이 개발되어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어휘·의미 정보는 물론 예문을 찾아 볼 수도 있게 되었다<sup>3)</sup>. 또한 최근 발간된 어휘 교재<sup>4)</sup>들은 사전과 워크북을 겸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 학습자 수준에 맞는 의미 풀이와 사용 연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학습자 모어 어휘 의미 체계가 한국어 어휘의 의미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전이나 어휘 교재의 내용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경우 교사의 충분한 설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학습자의 모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사전의 설명과 예문을 학습자가 이해할 수 없고 그 의미를 찾아 또 다른 어휘에서 어휘로 해매고 다녀야 한다면 효율성 역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

있는 외국어 등을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바. 예문 제시는 단어 단위, 구 단위, 문장 단위, (필요한 경우) 담화 단위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통사 정보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숙달도나 필요도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아. 개별 어휘에 대한 정보 표시 역시 학습자의 요구도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에는 김하수 외(2007).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사전』, 서상규 외(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김종록(2009). 『외국인을 위한 표준한국어 동사활용사전』 등이 있다.

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독학 교재로는 연세대학교 어학당(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습』, 배도용 외(2009).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어휘』 등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습자의 모어이다. 학습자의 모어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어휘 의미 학습용 사전을 개발한다면 학습자의 어휘 의미 학습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2.3 코퍼스

사전과 어휘의미망을 활용하여 어휘 의미와 의미간의 관계를 이해하더라도 의미의 사용이나 각 의미 간의 용법 차이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례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 어휘 의미가 사용되는 용례를 실제적인 문맥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퍼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코퍼스(corpus)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글을 모은 언어 자료를 의미한다. 현대 언어학에서 코퍼스라는 용어는 이러한 단순한 정의를 넘어서는 특정한 의미로 사용된다. 즉, 현대 언어학 입장에서 본 코퍼스의 의미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말과 글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한 자료를 말한다. 또한 콘코던스 역시 코퍼스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제이다. 콘코던스(concordance)는 특정한 어휘 항목을 그것이 실제 글이나 말 속에서 사용된 문맥과 함께 목록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중심(node)이 되는 낱말, 어구, 문장 등은 가운데에 오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 문맥이 위치한다. 이러한 콘코던스를 통해 어휘의 의미, 연어적 지식, 문법적 형태, 동일 낱말의 서로 다른 의미, 관용적 표현, 어휘나 문장의 은유적 쓰임 등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코퍼스는 주로 어휘 항목 선정이나 언어 관계 등을 분석하거나 학습자 작문 등을 이용하여 오류를 분석하는 등의 연구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코퍼스는 살아있는 용례로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어휘 사용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보다 학습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코퍼스의 활용이 필요하며 코퍼스의 활용은 어휘 목록이나 용례 분석 이외에 어휘 교육 자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새로운 의미를 접했을 때 콘코던스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용례를 찾았다고 할 때 그 기반이 된 코퍼스가 무엇이나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코퍼스들의 경우 모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용례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많은 코퍼스 자료들은 문학 작품, 신문, 영화 대본, 뉴스 대본 등 텍스트의 종류가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용례는 문장의 구조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 문법 등의 수준 자체가 높다. 이 같은 자료에 포함된 용례를 그대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문맥의 상황도가 낮아 학습자들은 그 의미의 추측은 물론 문장 전체에 대한 이해도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수준에 맞는 코퍼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재를 코퍼스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코퍼스의 구축은 기존의 자료와 함께 다양한 학습 수준과 목적으로 가진 학습자에게 좋은 용례를 제공해 줄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한국어 교재는 그 수가 상당하며 각 교재에는 수준별로 다양한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텍스트들은 교육적으로 검증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코퍼스가 너무 실제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해 준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교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의 용례를 검색 결과를 통해 자신이 찾는 의미를 이해하고 바른 사용을 학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퍼스 활용이 실제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학습자가 용례를 검색하기 전에 초급, 중급, 고급 수준의 코퍼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재 코퍼스를 구축하면 각 교재가 이미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퍼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용례를 검색하여 쉽게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 2.4 컴퓨터 보조 언어학습 원리의 활용

컴퓨터 언어 보조 학습(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 CALL)은 언어 교육을 위해 기획하고 개발된 전문 프로그램으로 멀티미디어 요소가 총체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학습장면을 학습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CD-ROM Title과 웹을 이용해 언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접근이 용이하며, CD-ROM Title보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인터넷 언어 학습으로 대별된다. 또 하나 하이퍼미디어(hypermedia)의 등장은 CALL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었는데 하이퍼미디어는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함께 연결하여 학습자가 마우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방식을 말한다.

CALL은 수업의 보조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학습자 독학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특히 학습자 독학용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하이퍼링크를 통해 설정해 두면 학습자는 교사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희(2008)에 따르면 하이퍼링크(hyperlink)는 ‘책(교재)’를 통해서 불가능한 정보들의 웹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시소러스, 온톨로지, 시멘틱 웹, 인공지능, 워드넷 등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복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각각 구동 방식이나 메커니즘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휘 내부 정보에 기반하여 지식처리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학습자들은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있고, 학습자 모어에 대응되는 어휘로도 연결해 갈 수 있다. 또한 CALL을 기반으로 하면 반복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

가 부족한 것을 다시 찾아 학습하고 원하는 곳에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능동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에 적합하다.

어휘 의미 교육은 특히 교실 수업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독학 교재 혹은 프로그램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앞서 정리한 사전, 어휘의미망, 코퍼스를 연결하여 학습자들이 어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어휘의미망 사전을 개발하고, CALL을 기반으로 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3. 어휘의미망을 이용한 어휘 의미 학습 자료의 개발

여기서는 한국어 동사를 중심으로<sup>5)</sup> 어휘 학습용 한국어 사전의 개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습자 스스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는 학습 자료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어휘의미망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위해 사전, 어휘의미망, 코퍼스 가운데 어휘의미망을 중심에 두고 어휘의미망을 따라 제시되는 어휘 의미를 사전과 코퍼스를 통해 이해하고 연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휘의미망을 중심이 되는 것은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가 어휘의미망을 전제로 하되 코퍼스 용례의 활용과

---

5) 본 연구는 효율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동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한국어에서 문장을 이루는 중심이 동사에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견해를 근거로 한다. 먼저 김민수(1983)에 따르면 파니니 문법에서는 명사와 동사를 주부와 술부로 구분하였는데 이 가운데 동사가 문장의 중심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주시경(1910)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문장의 기본적인 중심 성분이 ‘남이’ 즉, 서술어라고 본 것이 그러하다. 또한 최호철(1993)도 서술어가 문장이 일정한 의미를 갖도록 마무리해 준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면 어휘의 의미 교육 연구에서 동사를 연구에 중심에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학습자들은 동사를 사용하여 간단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부터 학습을 하게 되며 동사는 다른 품사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의미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중언어사전의 정보를 부가적인 기능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개발하는 학습 자료의 명칭도 ‘어휘의미망을 활용한 어휘 의미 학습 자료’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하는 단계를 제시한다.

### 3.1 어휘의미망<sup>6)</sup> 활용의 이점

본고에서는 기존의 어휘의미망을 외국인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 어휘의미망을 통해 기본적인 의미 정보나 다양한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 사전과 코퍼스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그 의미와 용례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 모어 어휘의미망과 링크하여 학습자 모어 체계와의 비교도 가능한 구성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어 동사들의 어휘 의미의 정의를 찾는 방식의 어휘 의미 학습 방식이 아닌 한국어 의미 체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한 어휘 의미 학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어휘 의미 학습을 위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어휘의미망을 도입하는 것의 이점을 간단히

- 
- 6) 어휘의미망을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은령·윤애선(2005)에서는 직접구축방식과 간접구축방식에 대해 정리했는데 직접구축방식은 어휘 의미의 분류와 계층구조의 망을 모두 단일어 사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직접구축방식은 개별언어의 언어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어휘의미의 분류가 다른 언어에 경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국어와의 연동성이 낮고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간접구축방식은 일반적으로 기구축된 어휘의미망을 토대로 (반)자동 내지 수동으로 대역하고 목표언어의 의미 구조를 반영하는 정제 및 재구조화 과정을 거쳐 목표 언어의 어휘의미망을 구축한다. 현재 영어 워드넷을 참조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어 어휘의미망 KorLex는 어휘 의미를 의미 간 관계로 구현하는 대규모 언어 자원이며 간접구축방식으로 구축된 어휘의미망이다. 이은령·윤애선(2007)에 따르면 일차적으로는 영어의 계층구조와 의미 관계를 근간으로 대응하는 한국어를 선별하여 사상하고 추가와 확장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기에는 영한사전과 한국어 사전을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의미 분류와 뜻풀이를 기초로 하여 다의어 구분을 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다양한 사전과 연결이 된 어휘의미망은 의미 관계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의미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의미가 가지는 의미를 사전적 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나. 언어 사전 지식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식 지식 정보로까지 연결이 확장되기 때문에 특수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의미 역시 알 수 있다.
- 다. 다국어 인덱스를 이용하면 어휘 의미와 학습자 모어를 비교할 수 있어 학습자 입장에서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해 진다.
- 라.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한 어휘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유용하다.

결국 어휘의미망의 활용은 기존 사전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의 제공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각 어휘 의미에 대응되는 의미 관계의 파악이나 학습자 모어 체계와의 대응 등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3.2 ‘어휘의미망을 활용한 어휘 의미 학습 자료’ 구축의 유의점

어휘의미망과 사전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했을 때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의 원인은 기존의 어휘의미망의 규모와 그 구성이 외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워드넷이나 유로워드넷, KorLex 모두 외국어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현희(2008)은 대규모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하며 ‘한국어 교육용’이라는 특정 목적이 주어지면 어휘의미망의 각 절점이 되는 어휘 선정이나 어휘들 간

의 관계, 어휘 내부의 배열 방법 등 다양한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휘의미망 개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휘의미망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혼자서 어휘 의미를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축해야 할 대상 어휘를 선정하고 그 정보들을 다시 정리하는 언어적 부분이나 하이퍼링크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전산언어학적 부분은 다루지 않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어휘의미망을 외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방향 제시의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자 한다.

기존의 어휘의미망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의미망을 활용한 어휘 의미 학습 자료’로 개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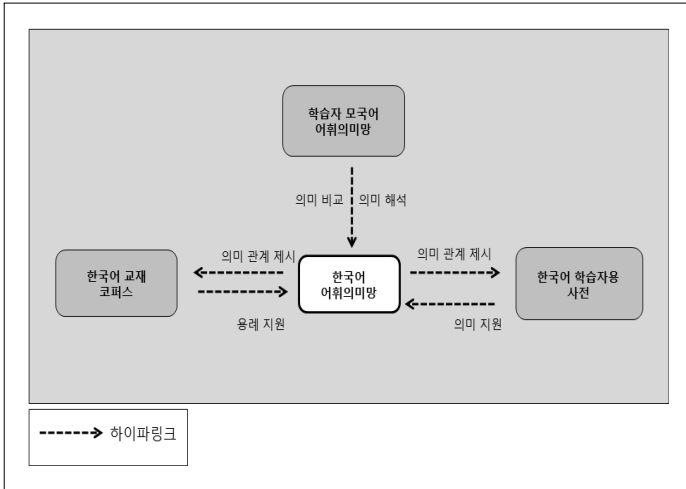
- 가. 각 절점을 이루는 상위 어휘 선정 시 한국어 학습자용 어휘 목록을 활용해야 한다. 기존의 어휘의미망의 대상이 된 어휘들은 전문적인 혹은 학술적인 텍스트를 포함한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목록이다. 그러나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라면 그 같은 어휘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 나. 어휘의미망의 단계를 초, 중, 고급 수준으로 나누어 학습자들이 자신이 해당하는 수준의 어휘의미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각 어휘가 갖는 어휘 의미별 의미 관계의 제시뿐만 아니라 각각의 의미 설명과 용례가 링크되도록 해야 한다.
- 라. 의미 설명은 각 어휘 의미 제시 수준에 맞는 문장이나 텍스트, 혹은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제시되게 설계해야 한다.
- 마. 학습자 모어망과 연결되는 경우 언어의 차이로 발생하는 의미 관계나 설명 등을 구축 계획 시 미리 예상하여 정리해 두어야 한다.
- 바. 학습자가 찾고 있는 어휘 의미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어휘 의미 체계 내에서 해당 의



미가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3.3 어휘의미망을 활용한 어휘 의미 학습 자료 활용의 실제7)

여기서는 한국어 동사의미망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어휘 의미를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구현해 보고자 한다8). 이유경(2011)에서는 하이퍼링크의 원리와 어휘의 의미 관계를 활용하여 한국어 동사의미 학습 자료 구축 원리를 제안한 바 있다.



<그림 1> 어휘의미망을 활용한 한국어 동사 의미 학습 자료 구축 원리(이유경, 2011)

- 7) 워드넷, 유로워드넷, KorLex 등의 어휘 의미망은 개념을 중심으로 어휘와 어휘를 망으로 연결하고 어휘들의 형태적 유의 관계, 의미적 유의 관계, 다의, 논항 구조 등에 따라 복잡하게 망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의에 초점을 둔 망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또한 동사의 다의를 중심으로 망을 구성하는 만큼 각 절점에 오는 의미는 하나의 단어가 아닌 경우가 많다.
- 8)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적 분석이나 전산언어학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고 기존의 분석과 어휘의미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제안을 한다.

이와 같은 구축 원리를 바탕으로 한 어휘의미망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어휘 의미 확장과 각 확장 의미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동사 ‘오다’를 중심으로 어휘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어휘의미망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 3.3.1. ‘오다’ 어휘의미망의 정리

<표 1> ‘오다’의 의미 관계

의미 구분 <sup>9)</sup>	대표적인 쓰임	동의어	반의어
I I ① 다른 곳에서 이 곳으로 움직이다.	(구체적 장소)에 오다	-	가다
II ① (비나 눈 등이) 내리다.	눈이 오다	내리다	그치다
I ② (일을 보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일정한 장소로 움직이다.	수업에 오다	참석하다	빠지다
II ②① (일정한 때나 철이) 되다.	(시기, 계절)이 오다	되다	가다
VI(어떠한 원인에서 그 결과로) 일이나 현상이 생겨 나타난다.	(현상, 상황)이 오다	생기다	없어지다
IV ① (유학/문병/세배/면회/등산 따위의 어떠한 일을 하러) 일정한 장소로 움직이다.	(유학, 문병)을 오다	하러 오다	마치다
II ②㉠ (어떠한 때나 세상이) 닳치거나 나타난다.	(세상, 시절)이 오다	도래하다	지나가다
I ③ 입학하거나 들어가다.	(대학)에 오다	입학하다	졸업하다
I ⑧ 무엇이 닿거나 전달되거나 도착하다.	(편지, 연락)이 오다	전달되다	보내다
II ④ 잠에 들거나 들기 시작하다.	(잠)이 오다	졸리다	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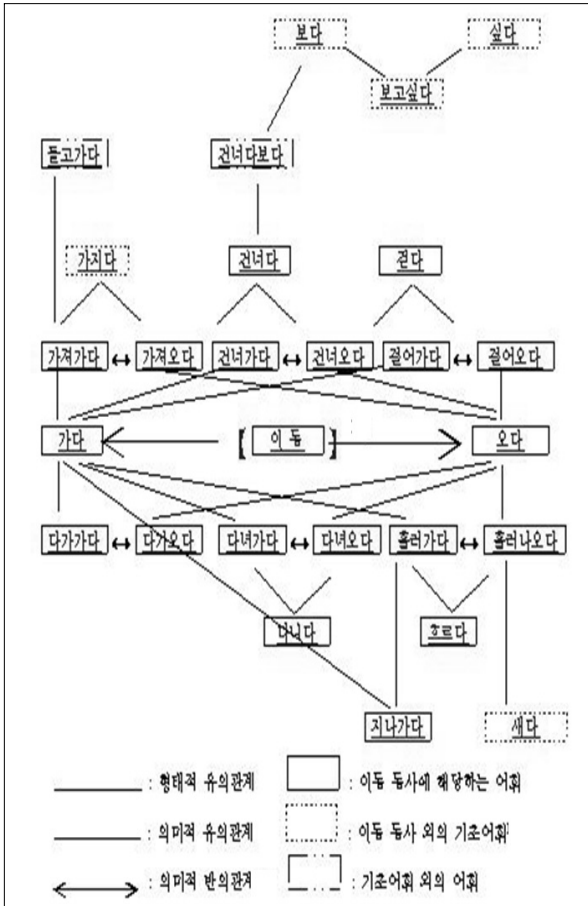
I ⑤ 어떠한 위치에 오다.	(위치)에 오다	이르다	-
I ⑥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다.	(지경)이 오다	이르다	-
III ③ (변화 등이) 나타나다.	(변화)가 오다	생기다	없어지다
III ② (어떠한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다.	(마비, 갈증)이 오다	느껴지다	없어지다
I ④ (어떠한 직책 등을 가지고) 부임하다.	(교장, 부장)이 오다	부임하다	전출가다
V 어떠한 길을 통하여 어디로 움직이다.	(멀리 돌아서) 오다	움직이다	가다
III ① (어떠한 느낌) 떠오르다.	(느낌, 감)이 오다	떠오르다	사라지다
IV ③ 결혼을 하다.	(시집, 장가)를 오다	결혼하다	이혼하다
I ⑩ 어떠한 기준이나 정도가 닳거나 이르다.	(무릎)에 오다	이르다	닿다

각 어휘 의미를 길게 정의하는 문장 형식으로 어휘의미망을 그리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쓰임’으로 정리된 것들을 중심으로 어휘의미망을 그리려고 한다. 동사의 경우 앞뒤에 오는 논항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의미 관계에 있는 동의어와 반의어가 있는 경우 이것도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다’의 어휘의미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다’가 동사 범주 내에서 다른 동사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다’는 동사의 하위 분류 가운데 이동 동사에 속한다. 이현희(2008)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의미망 구축의 기초 연구로 ‘이동 동사’의 어휘망을 구성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다’의 이동 동사의 어휘망 안에서 위치는 이현희(2008)을 참고하여 구성한다.<sup>10)</sup>

9) 각 번호는 서상규 외(2000)의 번호이다.

10) <그림>의 이현희(2008)은 어휘의 의미 관계를 반영한 망을 것으로 보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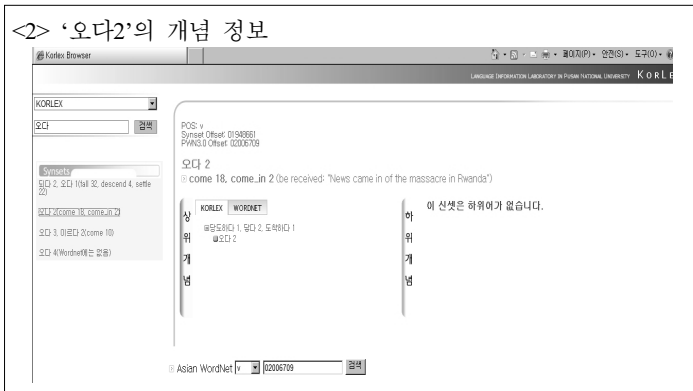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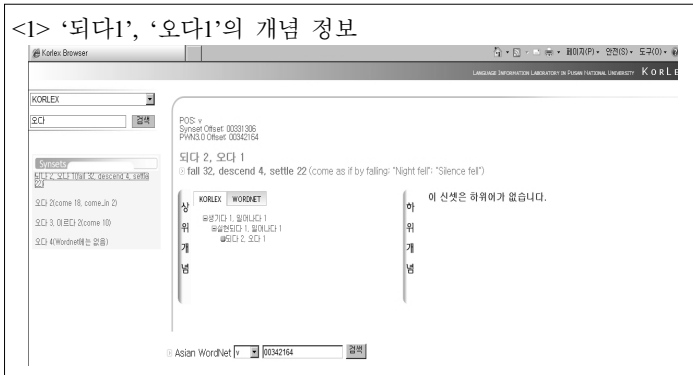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어 이동 동사의 어휘망(이현희, 2008)

다음으로는 ‘오다’의 의미 관계를 어휘의미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다’는 ‘가다’와 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휘 의미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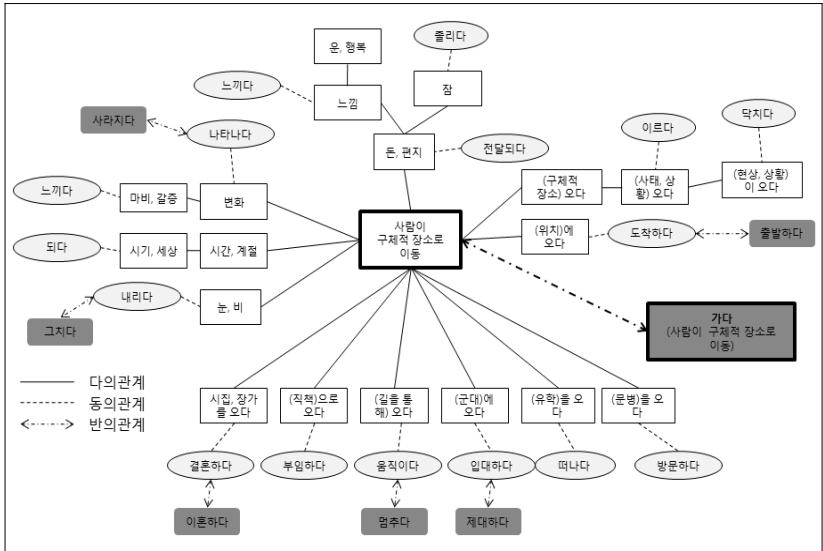
‘어휘의미망’이 아닌 ‘어휘망’으로 되어 있다. <그림2>의 제목은 이현희 (2008)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KorLex에서 ‘오다’를 검색하면 아래의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되다 2, 오다 1(fall 32, descend 4, settle 22), 오다 2(come 18, come\_in 2), 오다 3, 이르다 2(come 10), 오다 4(Wordnet에는 없음)’의 신셋이 나타난다. 각 신셋을 누르면 동의어와 WordNet의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러나 KorLex의 의미 정보는 동의어 관계가 주이며 영어 풀이가 제공되기 때문에 영어권 화자 이외에는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또한 각 신셋의 하위 정보 역시 의미 관계나 뜻풀이, 예문 정보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부족하다.



<그림 3> ‘오다’의 Korlex 검색 결과

동의 관계, 반의 관계, 다의 관계 등의 의미 정보를 고려하여 ‘오다’의 의미를 재정리한 <표1>을 바탕으로 어휘의미망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4>와 같다. <그림4>는 ‘오다’의 의미 관계뿐 아니라 각 의미가 사용될 때 공기하는 명사나 조사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그림 4> ‘오다’의 어휘의미망

### 3.3.2. 학습자 텍스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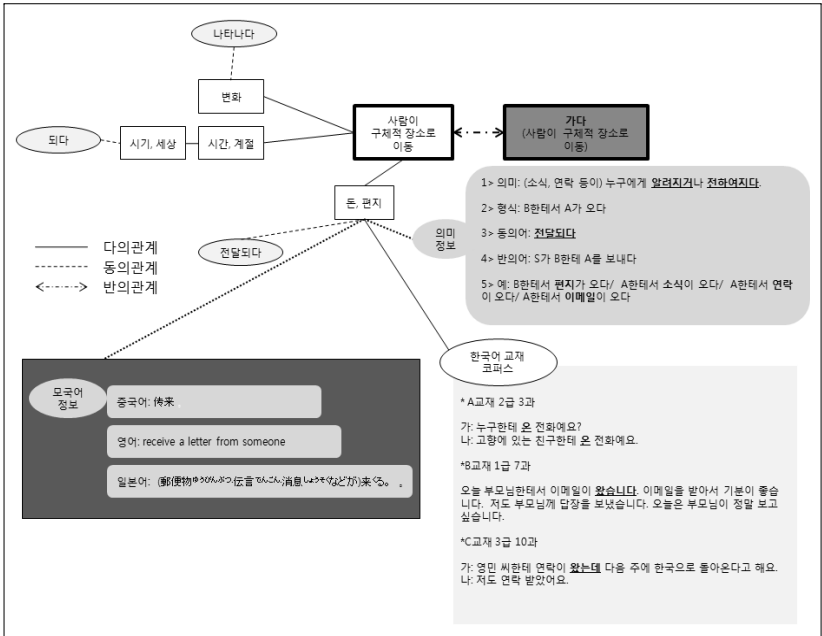
다음은 ‘오다’의 어휘 의미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의 일부이다. 4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접할 수 있는 텍스트로 학습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다’의 의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이퍼링크를 누르고 ‘오다’의 어휘의미망에 접속을 하게 된다. 어휘의미망에 접속하게 되면 해당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의 의미 관계에 있는 어휘의 정보와 공기 관계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재 코퍼스를 보면 해당 어휘

가 각 교재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습자 수준에 맞는 예를 볼 수 있다.

<학습자 교재 텍스트 예>

‘땡땡’스마트폰에서 이메일이 왔다는 신호가 들린다.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읽고 있다. 이제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메일을 쓰고,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바로 스마트폰에 의한 인터넷의 진화가 가지고 온 변화 덕분이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스마트폰 속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오다’를 누르면 하이퍼링크를 통해 어휘의미망에 접속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 오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어휘의미망에 연결된다.



<그림5> 어휘의미망 사전의 활용 예

의미 정보에서 제공되는 어휘들은 다시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각각의 어휘 의미 정보로 다시 연결되어 학습자들은 의미를 확장해 갈 수 있게 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어 사전의 하나로 어휘의미망과 코퍼스 등을 활용한 사전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발 원리와 같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어휘의미망의 각 절점이 되는 상위어의 어휘 선정이나 어휘들 간의 관계, 어휘 내부 정보 배열 방법 등을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을 고려하여 새로이 망을 구축한다면 현재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전이 실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어휘의미망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작업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현화(2011).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방법론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호. 이중언어학회. 453~479쪽.
- 강현화(2000). 코퍼스를 이용한 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7권 1호. 이중언어학회. 57~75쪽
- 강현화·최진희(2009). 학습 검용 어휘자료집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43쪽~53쪽.



- 강현화·홍혜란(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학습용 워크북 개발 모형 연구: 그림 어휘사전 워크북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20권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30쪽.
- 고석주(2007). 어휘의미망과 사전의 뜻풀이. <한국어 의미학> 24호. 한국어 의미학회. 1쪽~21쪽.
- 김민수(1983). 『신국어학사』. 서울: 일조각.
- 남경완(2005). 『국어 용어의 의미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상규 외(2000).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 사업보고서』. 문화관광부/한국어 세계화 추진위원회.
- 신현숙(1998). 한국어 어휘 교육과 의미 사전. <한국어 교육>9권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5쪽~103쪽.
- 신현숙(2011). 의미망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문학연구>56호. 한국어문학연구회. 449쪽~479쪽.
- 이숙의(2010). 어휘 교육 자료로서의 어휘의미망 활용에 관하여. <한국어 교육> 2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1쪽~165쪽.
- 이유경(2011).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의 의미 교육 방안; 동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유경(2011). 한국어 어휘 의미 교육 등급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동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7호. 이중언어학회. 111~138쪽.
- 이은령·윤애선(2007). 표준국어대사전의 동사 정보 개선을 위한 연구 표준국어대사전의 동사 정보 개선을 위한 연구. <韓民族語文學>51호. 한민족어문학회. 157쪽~194쪽.
- 이은령·윤애선(2005). 한국어 동사의 어휘의미망 구축을 위한 중립동사의 의미 분할. <언어와 정보>9권2호. 한국언어정보학회. 23쪽~48쪽.
- 이정민·강현화(2008). 한국어 독학용 어휘학습 교재 개발 방안: 좁은 독서를 통한 점층적 어휘학습 전략 활용. <한국어교육>19권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22쪽.
- 이현희(2008). 한국어 동사의 어휘학습 자료 구성 방안 연구; Wordnet 구성을 이용한 한국어 이동 동사 어휘망을 기반으로. <문법교육>8호. 한국문법교육학회. 191쪽~218쪽.
- 주시경(1977). 『國語文法』. 京城: 博文書館. 1910. 김민수. 『歷代韓國文法大系』(共編. 第1部第4冊). 서울: 탑출판사.
- 차준경·임해창(2010). 어휘 의미망의 형태 의미 관계 설정; 국어의 사건 명사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34집. 한민족문화학회. 165쪽~191쪽.
- 최경봉·도원영(2005).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을 위한 상위 온톨로지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28호. 한국어학회. 217쪽~244쪽.

최병진(2011). 온톨로지에 기반한 독일어 소유 관련 동사 표상에 관한 연구. <독어문학>114호. 한국독어독문학회. 85쪽~104쪽.

최호철(1993). 『현대 국어 서술어의 의미 연구: 의소 설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유경(Lee Yookyong)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전화번호: (02) 3290-2434

전자우편: idechy@hanmail.net

투고일자: 2011. 12. 20

심사(수정)일자: 2012. 2. 11

게재결정: 2012. 5. 30